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박 동 신

광주보훈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저는 조달청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는 박동신입니다.

호스피스 봉사는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임종 환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흔히들이 일을 어둡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만을 연상하기 쉽지만 호스피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남은 시간, 남은 삶을 어떻게 충만하게 살도록 하느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긴 여정에서 환자가 마지막으로 참된 삶을 찾도록 도움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 인간이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가족과 함께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아프고 외로운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편에 서서 정성어린 보살핌과 지지를 해준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고유의 몫이요, 보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소에는 죽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가 정작 죽음에 직면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남아있는 삶이 짧다고 아쉬워합니다만

남아있는 생을 훨씬 더 보람 있고 값진, 질적으로 알찬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 봉사자의 역할입니다.

죽음 앞의 이별처럼 막막하고 장엄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떠나는 자에게도, 남은 자에게도 그 이별을 잘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그 준

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호스피스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한 가지씩 배우게 되는데 우연한 기회, 우연한 행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라도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희생이 그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된다면 작은 희생이라도 희망을 가질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희생을 봉사 또는 섬김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때로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은 비참한 패배나 희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대 때부터 죽음과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죽음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는 온갖 지혜를 동원해 왔습니다만,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죽음의 실체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준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랑과 신뢰로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가족이냐 친구냐는 별개의 문제이며, 아무리 큰 고통도 쉽게 수용할 것입니다.

죽음을 한 걸음 앞까지 다가가 살펴본다면 죽음의

의미와 가치가 보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삶이란 죽음을 위한 서곡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할 만큼 죽음 앞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임해서는 생전에 베풀지 못한 남아있던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사랑이 가득 찬 채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봉사를 하다 보면 그들의 이별 앞에서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시들음이 늦음(사철 푸르다는 뜻)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라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歲寒圖)속의 글귀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항심(恒心)을 가지고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깨닫게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참 사랑”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합니다.

미치 앨봄이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서 말했듯이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그 엄연한 섭리 앞에 저는 엄숙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엮는 관계와 경험한 감정이 천국을 이루는데 바탕이 된다는 것을 …… .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 천국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합니다.』(마더 씨튼)

죽음 준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요? 재산과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것, 불화 속에 있는 사람과 화해하는 것, 남은 시간을 가족과 애뜻한 사랑을 나누는 것,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등, 비중은 사람마다, 처해 진 환경마다 제 각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병마와 치절한 투쟁을 하면서 살아온 환자들은 주변을 잘 정리하고, 인연을 맺고 살아온 사람들과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한다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돌봄으로 인해 환자가 한 가닥 작은 평화와 위로를 얻기 바랄뿐입니다.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 옆에서는 함께 침묵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할 말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같은 마음이 되어 그 말들을 들어주기도 하고 기도를 원하는 사람과는 울면서 같이 기도하며, 한때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병은 우리에게 삶에 대해 혹은 미처 못다 베푼 사랑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준다고 어느 분이 말하셨습니다. 아니, 꼭 육체의 병이 아니라도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 역시 삶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참 스승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라는 우리 인간이 넘지 못할 거대한 장벽으로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으로써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치유의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시선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 환자 자신의 고유성과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사랑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현세(現世)에 살면서 죽음과 사이 좋게 사는 지혜를 깨닫고 ‘떠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삶의 진실을 배워야하겠습니다.

나의 봉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드리는 시간과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선한 열매로 영글어 가기를 늘 기도하면서 봉사에 임하고 있을 뿐입니다.